

### 청와대 독백-그네 일기



#### 이홍재의 세상만사

주필

“남의 일기를 훑어보는 것만큼 재미있는 일은 없다.”-무명씨(無名氏)

#### 2016년 10월 x일(제목 : 따뜻했던 그분)

엄마 아빠 따라 이 집에 들어온 게 내가 열두 살 되던 해야. 신당동 살 때야 좋았지. 말뚝 하나 없는 궁궐 같은 청와대는 별로였어. 더군다나 엄마가 흉탄에 돌아가셨을 때 난 뉘고 자던 이불을 누가 걷어 가버린 거 같았어. 미친 듯이 피아노를 두들겨도 사라지지 않는 외로움. 지워지지 않는 두려움.

그때 어떤 분이 편지를 보내오신 거야. 엄마가 꿈에 나타나 나를 보호해 달라고 하셨다는 거지. 그분을 뵈면서 나는 전신에 전류가 흐르는 거 같았어. 옆에서는 별말들이 다 많았지. 나도 알아. 근데 아빠는 그분의 영험함과 충성심을 믿었어. 그래서 아빠는 그분이 만든 선교구국단을 구국여성부사단으로, 나중에는 새마을부사단으로 키워

주셨잖아. 사람들은 아빠가 나와 그분 사이를 마복창이 하겠다고들 하지만 그건 잘 모르겠어.

아빠가 돌아가셨을 때 난 정말이지 두려웠어. 갑자기 천애고아가 된 난 그분의 보호와 배려가 없었다면 밥 한 숟 뜨지 못하고 잠 한숨 들지 못했을 거야. 18년이나 살았던 내 집에서 쫓겨난 우리 삼남매에게 세상은 너무 매정했어. 환호는 간데없고 독재자의 딸이라는 아우만 들리는 거야.

그분과 그분 가족들은 달랐어. 나를 위로해 주고 보살펴 주었지. 육영재단 운영도 그분과 손실이가 아니었으면 어림없었을 거야. 아빠에게 물려받은 재산도 여저 그리 크게 늘릴 수 있었는지. 20년 전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난 엄마를 잃었을 때 만큼 슬펐어. 다행히도 그분은 나를 돌봐 줄 후계자를 미리 예비해 놓으셨어. 손실이가 그분이 점지해 놓은 내 미루고 내 수호신이야.

#### 2016년 10월 x일(제목 : 아빠의 유업)

손실이가 아빠의 유업을 이어 보라고 권했을 때 난 많이 망설였어. 솔직히 말하면 난 정치 같은 거 하기 싫었어. 실은 그 무렵부터 내가 생각해도 내 말이 좀 흠어지는 게 느껴졌거든. 마지막에 손실이가 쟁겨 준다는 약속을 받고 정계에 진출한 거야. 난 퍼스트레이디 시절 그랬던 것처럼 이제 미소 짓고 손 흔들기만 하면 되었지.

내가 왜 정치를 시작했나? 딱 하나, 아빠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 우리 후손들이 아버지라 친 일파니 독재자니 하고 비난하는 것만은 절대 용납

할 수 없었어. 오늘따라 유난히 엄마 아빠가 그리고 그분의 예지가 절실해져. 손실이라도 있으면 든든할 텐데. 전화하기도 어렵게 되었으니 난 또 절하고도에 혼자 있는 신세야.

손실이에게 연설문 좀 손봐 달라고 한 게 그리도 큰 잘못인가. 손실이에게 입을 옷 좀 코디해 달라는 게 그리도 큰 잘못인가. 재벌들의 협조를 받아 재단 만들어 나라 위해 좋은 일 하려는 것이었는데 공직을 맡지 않은 손실이가 개입했다? 내가 그리 시켰어. 그게 어쩔다는 거야.

#### 2016년 12월 9일(제목 : 기구한 운명)

오늘은 국회가 3분의 2를 훨씬 넘는 찬성으로 나에 대한 탄핵 소추를 의결한 날. 믿었던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까지도 탄핵에 가세하다니. 배신자들! 참 나쁜 사람들!

돌아보니 정치에 입문한 지 벌써 18년이네.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정치판에 들어오기 전까지 나의 은둔생활도 18년이었고. 아버지의 재임기간도 18년이었으니. 18년! 우연도 이런 기막힌 우연이 있을까. 운명도 이런 기구한 운명이 있을까. 최고의 정사관이었던 진시황의 생부 여불위는 “제상에서 가장 큰 장사는 권력을 얻는 것”이라 했다

는데. 내 어떻게 해서 얻은 권력인데... 이대로 물러나야 하는 것인가. 흑흑.

#### 2016년 12월 15일(제목 : 큰일 났네)

“개는 쓸데없는 애기 뭐 하러 해. 그 폰은, 그거 댔대요? 큰일 났네.” 손실야. 네 말처럼 정말 큰일 났구나. 꽃 같은 아이들이 배 안에 갇혀 살려 달라 아우성치던 그때. 솔직히 말하면 모두 구명조끼까지 입었다는데 그렇게 큰 참사로 이어질지 내 어떻게 알았겠어?

내 관심사는 그게 아니었지. 주사 자국이나 명자국 들기만 안 되는데, 큰일 났네. 90분은 해야 할 울림머리 20분 만에 날림으로 해서 흘러내릴 텐데, 큰일 났네. 재들 어미 애비들이 시체 장사하려 할 텐데, 큰일 났네. 훗날 들고 물러와 집 나가라고 아우성칠 텐데, 큰일 났네. 우리 아빠 동상에 빨간 글씨 새길 텐데, 큰일 났네. 민족중흥의 위대한 역사가 뒤집어질 텐데, 큰일 났네.

#### 2017년 3월 10일(제목 : 피눈물)

피눈물이 난다. 탄핵이구나. 국민이 뽑아 준 대통령인 내가 탄핵을 당하다니. 세월호 참사로 자식을 잃은 사람들이라 해도 나의 피눈물을 이해하긴 어려울 거야. 일찍이 부모를 잃고 국가와 결혼한 내가 이제 사랑하는 나라를 남겨두고 강제 이혼을 당하게 됐으니.

였어. 완전히 엮인 거야. 손실이 말이 맞았어. 이걸 민주주의의 현재가 아니라, 야당에서 추천한 빨갱이 특검 검사들은 그렇다 치고 현재 재판관들

까지 빨간 불이 들었을 줄이야.

이제와 생각하니 국면 전환용 돌파구는 ‘개헌’이 아니라 ‘계엄’이었어. 지금 내 나이도 어느덧 만칠(鬮七 : 일흔을 바라본다는 뜻으로 나이 예순한 살을 이르는 말)을 넘어선 지 오래. 가는귀를 먹은 것은 아니지만 어쩌다 사람 말을 잘못 알아들을 때도 있어. 그래, 하필이면 그때 손실이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을까.

내게 전화를 건 손실이는 모든 걸 덮으려면 ‘계엄’이 필요하다고 분명 말했다. 한테 내가 ‘개헌’으로 잘못 알아들었던 거지. 땅을 치고 싶어. 돌아가신 아버지처럼 그때 계엄령을 선포했다더라 다음날 태블릿피시 하나 나왔다고 해서 저들이 뭘 어떻게 했겠어. 모두들 그저 쥐 죽은 듯이 꼬리를 내렸겠지.

나는 왜 아버지처럼 따라하지 못했을까. 어려울 때마다 계엄령으로 위기를 돌파했던 아버지. 70년대 초였던가. 당시 야당 지도자를 불러다 놓고 아빠가 했다는 말이 생각나네.

“여보 유진산 선생. 이승만 박사는 학생 200명이 죽으니 겁이 나서 대통령을 물러났지만 나는 학생 2만 명이 죽더라도 물러나지 않을 것이요.” 나도 사촌형부가 이미 말했던 것처럼 ‘5000만 국민이 달려들어서 내려오라고 해도 결코 물러나지 않으려’ 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허망하게 끝나게 되다니. 아버지! 오늘은 아버지가 더욱 그립습니다.

## 檢 “박 수사, 롯데·CJ 관계자도 소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해 SK 외에 롯데, CJ그룹 관계자도 필요하면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16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조사상) 필요하다면 롯데와 CJ 관계자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나 손경식 CJ그룹 회장 등 총수 조사 가능성을 묻자 “특정인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필요하다면 관계자를 조사하겠다는 뜻”이라고 부연했다.

수사본부는 최근 면세점 인허가를 담당하는 관세청 직원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데 이어 이날은 김창근 전 SK수펙스추진협의회 의장 등 SK 전·현직 최고위 관계자 3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박 전 대통령 소환을 앞두고 대기업 사이의 뇌물수수 혐의 확인에 수사력을 모으는 모양새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여러 대기업 중 SK 관계자를 먼저 부른 것에 “큰 의미는 없다”고 설명했다.

“1기 특수부” 때 김 전 의장 등이 조사를 받은 데 이어 이날 다시 소환된데 대해서

“1기 때와) 특별한 차별점은 없고, 지난번 조사받던 내용과 약간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어서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재소환 가능성에 대해서 “좀 두고 봐야겠다. 조사 결과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1기 특수부’에서 미르·K스포츠 재단 모금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도 이날 오후 불러 조사를 했다. 검찰 관계자는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과 관련해 물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 5월 대선... 19대 대통령 취임식 준비 ‘비상’

### 당선과 동시에 임기 시작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5월 9일 조기 대통령선거’가 확정되면서, 새로 선출되는 대통령의 취임식 계획도 새로 짜야 하는 상황이 됐다. 당장 취임식을 치를 시기와 장소도 결정

되지 않은 상황이다. 의전과 행사를 담당하는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16일 “현재 내 부적으로 대안을 검토 중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장소는 이전 대통령들의 전례를 따라 국회의사당 앞 광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국가적인 비상사태에서 취임하는 대

통령인 만큼 행사 자체를 간소하게 치르겠다는 의지를 보일 수도 있어, 새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헌 헌법은 제69조에서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해 선서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취임식을 열고 대통령이 선서할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

취임식 행사 자체는 간소화할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도 해외 정상 등 귀빈의 초대로 사실상 쉽지 않다. /연합뉴스



학교 가기 귀찮나? 16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자택 근처로 초등학생이 등교하고 있다. 경찰은 박 전 대통령 자택 주변 집회에 대해 주민과 아동 안전 침해 등 이유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

## 광주시·전남도 “대선 정국 공직기강 확립”

광주시와 전남도는 대선 정국을 맞아 공직기강 확립에 들어갔다.

광주시는 빨라진 대선을 앞두고 6개반 22명으로 특별감찰단을 구성하는 등 공직기강 확립에 들어갔다고 16일 밝혔다. 감찰 대상은 광주시 본청을 비롯해 직속기관과 사업소, 자치구, 공사·공단 등 시 산하 모든 기관이다.

대통령 선거일까지 공직자의 정치중립 위반행위, 공직기강 해이 및 복무감찰,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행동강령 위반행위 감찰활동 등을 한다.

공직자 정치중립 위반을 차단하기 위해 공직선거법리익신고시스템을 운영한다. 근무지 무단이탈, 민원처리지연, 소극행정, 복지부동, 공직자 품위 위반 등 징중적으로 복무감찰을 발한다.

AI와 구역역 등 방역대책 이행상황 점검과 시민 고충민원, 서민, 교통 등 취약분야 안전 확보 등도 점검한다. 성문옥 시 감사위원장은 “조기대선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공직기강 확립이 중요한 시기”라며 “정국 혼란 상황에 편승해 선거에 개입하거나 복무기강 해이 행위는 엄하게 처벌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최원일기자 cki@

### 태성공인중개사

상가 / 상가점포

- 신가동 4층 상가건물(일반상업지역) 대308㎡ 건물500㎡ 매15억
- 송정동 2층 상가건물 대385㎡ 건물500㎡ 매 13억
- 월계동 1,2층 상가점포 720㎡ 매28억(보2억원, 월1,200만 포함)
- 월계동 1층 상가점포 150㎡ 현 의류점 입점 매 13억원 (보1억5천/월5백만 포함)
- 월계동 1층 상가점포 170㎡ 현 신발대리점 입점 매 20억원 (보5천/월9백만 포함)
- 월계동 3층 상가점포 500㎡ 매 8억5천 (학원, 독서실, 임대가)
- 산정동 4층 상가건물 1,000㎡ 매 24억(보1억6천/월1,100만 포함)
- 수원동 5층 상가건물 750㎡ 매 23억(원1층 약국입점)

상가주택

- 장덕동 3층 상가주택 대300㎡ 건500㎡ 매 13억5천 (보8천/월524만원 포함)
- 장덕동 3층 상가주택 대246㎡ 건397㎡ 매10억5천 (보3천2백/월356만원 포함)
- 상기 외 다수 물건 보유. 상담환영

토지

- 산정동 생산녹지, 창고용지 3,810㎡ 20억
- 화정동 대지 967㎡ 매 35억원
- 장성군 삼서면 흥정리 대지 1316㎡ 매1억4천(지대농음, 남향)
- 담양군 남면 학선리 대지 1390㎡ 매 3억1천만원
- 담양군 대전면 대치리 창고용지 4,500㎡ 매 2억원

상가임대

- 장덕동 4층 빈 상가 830㎡ 4천/월450만(매매가)
- 장덕동 키즈카페(자동차체험형) 300㎡ 5천/월365만
- 수원동 대형 패밀리레스토랑 1200㎡ 3억/월1,500만

매물 접수, 상담 환영

문의 010-5536-0382 정현철

광산구 장덕동 롯데마트 부근

###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중·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 프리미엄 외벽 디자인방수

이파엘지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시스템

건축물에 예술을 입히다!

Step 1. 단상정리  
Step 2. 단상페인트시트  
Step 3. 외벽아트패션시트

4천여 가지 이상의 다양한 디자인 옵션이 적용된 아트패션시트

방수가 2-3년만 가면 된다고요?  
20년은 가는데...!

1/ 방수성능은 기본, 단열 및 보온효과까지 있어 냉방비 절감, 에너지 절약  
2/ 건축 내외장재 패네티디자인이 잔 엔디나와의 클라보 디자인!  
3/ 외벽에 옷 입히듯 시공함으로써 강물을 헐지 않고도 새 건물처럼!  
4/ 물에 강하고 불에는 더 강한 안전한 난연형 외벽 시트!

2중외벽 단열방수, 방수방비 절감, 탁월한 내구성과 내열성, 6년 무상 A/S

특허방수공법 이파엘지 옥상방수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자재추천제품,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 방수시스템

IPALG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광주전남 대리점 511-0444

010-6603-0405

검색창에 [이파엘지] 를 쳐주세요.

목포대리점 (061) 284-0485  
여수대리점 (061) 683-0485  
순천대리점 (061) 726-0482  
광양대리점 (061) 795-0485